



교육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알고, 자기답게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사람은 자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또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나름대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불교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을 아는 것이라 했고, 자신을 알게 되면 모든 공부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아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겠다.

흔히 '나' 라는 존재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보는 나', 둘째는 '남이 보는 나', 셋째는 '참모습의 나' 가 그것이다. 여기서 나는 과연 '나' 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우리가 비록 거울을 통해 '나' 를 본다 해도 그 거울의 굴절이나 훼손 정도에 따라 내 모습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거울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나' 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따라서 내가 '나' 를 보는 데 정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나' 의 생각이나 태도에 결국 문제가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우월감이나 자만심을 갖고 생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소극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다른 사람들이 '나' 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 를 잘 보게 되면, 나 또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끝내 발전적인 삶을 성취한다. 하지만 남이 나를 과대평가하게 되면, 자칫 쓸데없는 우월감에 빠져서 오히려 자신의 본모습을 잃을 수 있다. 남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에도 스스로를 비하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낭패를 겪게 된다.

또한 남이 '나' 를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집착해도 남의 눈치만 보다가 주체성을 상실하여 비굴한 사람이 되기 쉽다.

지금까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성공 여부는 물론 보람 있는 삶을 성취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지적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자신이 태어난 환경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자각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형성해 가지만, 진정한 '나' 를 알고 발견하는 데는 아직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라 하겠다. 그러니 더욱 노력을 배가하여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용기와 습관을 먼저 꿈꿀 수 있고, 선생님들의 훌륭한 가르침 또한 배울 수 없다. 그 밖에도 독서를 통한 폭넓은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동산인 모두는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어느 정도 일치하도록 항상 노력 하면서 생활하면 훌륭한 인간으로 또 훌륭한 동산인이 될 것이라 믿는다.

〈동산문화 발간 기념사〉



박인수 교장 선생님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고 만일 힘이 없으면 도무지 일은 하나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하려는 자는 먼저 그 힘을 찾을 것이다.”
암울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 조국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던 도산 안창호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산 선생은 우리 민족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힘’이 필요함을 간파하시고, 이를 깨우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힘’이란, 달리 표현하여 ‘실력’ 또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경제력·애국심·군사력 등이 모여 ‘국력’이라고 표현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 민족은 민족정신까지 말살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고, 교육이라는 ‘힘’으로 민족정신을 지키고자했던 선각자들에 의해 1938년 7월 14일 우리 ‘東山’이 개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선각자들의 건학이념을 이어받아 동산인 여러분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교교육을 통한 ‘힘’을 기르고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14일 우리 학교 야구부가 제 26회 대붕기 전국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동산의 이름을 전국에 떨쳤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4년 만에 다시 이룩한 쾌거이자, 우리 학교 개교 66주년 되는 개교기념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야구 선수들이 피땀 흘려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 이러한 훌륭한 성적을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 야구부가 전국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통해 힘을 길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지구촌 시대·지식 정보화 시대·무역 장벽이 없는 시대인 오늘날,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 힘을 기르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의 조건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은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보람 있게 살아가기 위한 실력, 즉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여겨집니다.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 폭 넓은 교양을 쌓거나 인격 함양을 위해 많은 독서를 하는 학생, 특기 적성을 계발하여 전문 분야의 소양을 기르는 학생, 이 모두가 자랑스러운 동산인의 모습입니다. ‘동산’의 개교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학생들이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도록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산고의 제 26회 전국 대붕기 야구대회의 우승을 축하하고, 또 개교 6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교의 전통이 더욱 빛을 발휘하도록 모두 정진하기를 기대합니다.